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11) 공개번호 10-2018-0120972
(43) 공개일자 2018년11월07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C09D 5/06 (2006.01)

(52) CPC특허분류

C09D 5/06 (2013.01)

B44D 2/00 (2013.01)

(21) 출원번호 10-2017-0055016

(22) 출원일자 2017년04월28일

심사청구일자 2017년04월28일

(71) 출원인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안암동5가)

(72) 발명자

정중미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2-7

(74) 대리인

정은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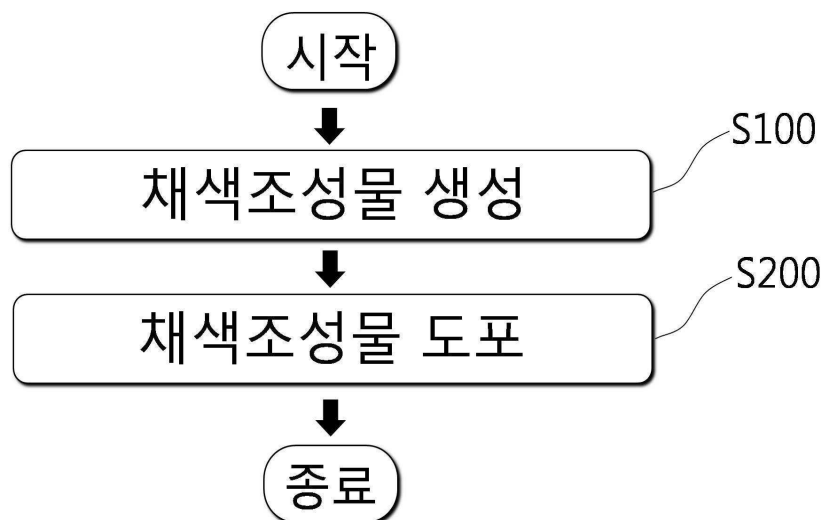
전체 청구항 수 : 총 9 항

(54) 발명의 명칭 회화의 채화방법

(57) 요약

본 발명은 회화의 채화방법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에 다른 회화의 채화방법은 (a) 소정의 색을 갖는 안료, 아교, 및 물 중 적어도 2 개 이상을 혼합하여 채색조성물을 생성하는 단계(S100), 및 (b) 채색 대상물에 채색조성물을 도포하여 채색하는 단계(S200)를 포함한다.

대표도 - 도1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고유번호 R1426793

부처명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관리전문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연구사업명 문화기술연구개발지원사업

연구과제명 [3/3] 전통단청·채화재료의 대체안료·전색제·채색기법 개발

기 여 율 1/1

주관기관 앤디엠

연구기간 2016.04.01 ~ 2017.03.31

명세서

청구범위

청구항 1

(a) 소정의 색을 갖는 안료, 아교, 및 물 중 적어도 2 개 이상을 혼합하여 채색조성물을 생성하는 단계; 및
(b) 채색 대상물에 상기 채색조성물을 도포하여 채색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회화의 채화방법.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a) 단계에서, 상기 아교와 상기 물을 1 : 4 ~ 8 비율로 혼합하여 상기 채색조성물을 생성하고,
상기 (b) 단계에서, 적어도 3 회 이상 상기 채색조성물을 도포하는 회화의 채화방법.

청구항 3

청구항 2에 있어서,
상기 (b) 단계에서, 상기 아교와 상기 물이 혼합된 상기 채색조성물인 제1 채색조성물을 도포한 후에, 상기 안료를 포함하는 제2 채색조성물을 상기 제1 채색조성물 상(on)에 도포하는 회화의 채화방법.

청구항 4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a) 단계에서, 서로 다른 색을 갖는 다수의 상기 안료 각각과, 상기 아교, 및 상기 물을 혼합하여, 서로 다른 색을 갖는 다수의 상기 채색조성물을 생성하고,
상기 (b) 단계에서, 다수의 상기 채색조성물을 하나씩 교대로 도포하여, 다수의 상기 채색조성물의 색과 또 다른 색을 표현하는 회화의 채화방법.

청구항 5

청구항 4에 있어서,
상기 아교와 상기 물은 1 : 4 ~ 8 비율로 혼합되는 회화의 채화방법.

청구항 6

청구항 4에 있어서,
상기 (b) 단계에서, 어느 하나의 상기 채색조성물을 도포한 후에, 백반과 물을 혼합한 백반수를 도포하고, 위에 다른 하나의 상기 채색조성물을 도포하는 회화의 채화방법.

청구항 7

청구항 6에 있어서,

상기 백반과 상기 물은 1 : 90 ~ 110 비율로 혼합되는 회화의 채화방법.

청구항 8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a) 단계에서, 서로 다른 색을 갖는 다수의 상기 안료와, 상기 아교, 및 상기 물을 서로 혼합하여, 다수의 상기 안료의 색과 또 다른 색을 갖는 상기 채색조성물을 생성하는 회화의 채화방법.

청구항 9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b) 단계에서, 상기 채색 대상물 상의 소정의 제1 위치에서부터 제2 위치까지 인접 구간별로 서로 다른 상기 채색조성물로 채색할 때에, 상기 아교의 양이 많은 상기 채색조성물부터 채색하는 회화의 채색방법.

발명의 설명

기술 분야

[0001] 본 발명은 회화의 채화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새롭고 다양한 기법을 통해 회화를 채색하는 회화의 채화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 기술

[0003] 캔버스, 종이 등의 표면에 선과 색을 이용하여 그린 그림을 회화라고 한다. 회화는 오랫동안 대표적인 미술의 한 장르로 존재하여 왔고, 그 주제도 종교, 신화, 초상화, 풍경화에 이르기까지 넓은 영역에 걸쳐있다. 한편, 회화를 표현하는 채색기법도 오랜 시간에 걸쳐 매우 다양화되었다. 특히, 천, 종이, 나무 등의 기재의 종류, 회화의 주제에 따라서 채색기법이 달라진다. 기재에 따른 채색방법으로는 하기 선행기술문헌의 특허문헌 1에 개시된 자개 및 칠기면의 채색방법을, 또한 회화의 주제에 따른 채색방법으로는 하기 선행기술문헌의 특허문헌 2의 불화제작방법을 예로 들 수 있다.

[0004] 한편, 한국화 또는 전통 건축물 등의 경우에는 독특한 채색기법을 사용한다. 그러나 전통채색기법은 매우 복잡하고 고도의 기능과 사전 지식을 기반으로 발휘되므로, 이를 익히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전통채색기법은 한국회화의 질을 보장하고 한국미를 표현하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가 있지만, 한국화의 대중화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최근 민화나 불화, 탕화 등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대중들이 쉽게 회화를 그리고 즐길 수 없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복잡한 채색기법에 있다. 이러한 전문적 채색기법으로 인해 대중의 접근이 차단되는 사실은 서양화를 포함하는 모든 채색화에 공통적인 문제가 된다.

[0005] 이에 종래 복잡하고 전문적인 채색기법을 대체할 수 있는 간단한 채색기법 도입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선행기술문헌

특허문헌

[0007] (특허문헌 0001) KR 2003-0073612 A

(특허문헌 0002) KR 10-0640736 B1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0008] 본 발명은 상술한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본 발명의 일 측면은 특정 색을 지닌 안료, 아교, 및 물을 혼합한 채색조성물을 이용하여 통일적이고 간단한 기법으로 회화를 채색할 수 있는 회화의 채화 방법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과제의 해결 수단

[0010] 본 발명에 따른 회화의 채화방법은 (a) 소정의 색을 갖는 안료, 아교, 및 물 중 적어도 2 개 이상을 혼합하여 채색조성물을 생성하는 단계; 및 (b) 채색 대상물에 상기 채색조성물을 도포하여 채색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0011] 또한, 본 발명에 따른 회화의 채화방법에 있어서, 상기 (a) 단계에서, 상기 아교와 상기 물을 1 : 4 ~ 8 비율로 혼합하여 상기 채색조성물을 생성하고, 상기 (b) 단계에서, 적어도 3 회 이상 상기 채색조성물을 도포한다.

[0012] 또한, 본 발명에 따른 회화의 채화방법에 있어서, 상기 (b) 단계에서, 상기 아교와 상기 물이 혼합된 상기 채색조성물인 제1 채색조성물을 도포한 후에, 상기 안료를 포함하는 제2 채색조성물을 상기 제1 채색조성물 상(on)에 도포한다.

[0013] 또한, 본 발명에 따른 회화의 채화방법에 있어서, 상기 (a) 단계에서, 서로 다른 색을 갖는 다수의 상기 안료 각각과, 상기 아교, 및 상기 물을 혼합하여, 서로 다른 색을 갖는 다수의 상기 채색조성물을 생성하고, 상기 (b) 단계에서, 다수의 상기 채색조성물을 하나씩 교대로 도포하여, 다수의 상기 채색조성물의 색과 또 다른 색을 표현한다.

[0014] 또한, 본 발명에 따른 회화의 채화방법에 있어서, 상기 아교와 상기 물은 1 : 4 ~ 8 비율로 혼합된다.

[0015] 또한, 본 발명에 따른 회화의 채화방법에 있어서, 상기 (b) 단계에서, 어느 하나의 상기 채색조성물을 도포한 후에, 백반과 물을 혼합한 백반수를 도포하고, 위에 다른 하나의 상기 채색조성물을 도포한다.

[0016] 또한, 본 발명에 따른 회화의 채화방법에 있어서, 상기 백반과 상기 물은 1 : 90 ~ 110 비율로 혼합된다.

[0017] 또한, 본 발명에 따른 회화의 채화방법에 있어서, 상기 (a) 단계에서, 서로 다른 색을 갖는 다수의 상기 안료와, 상기 아교, 및 상기 물을 서로 혼합하여, 다수의 상기 안료의 색과 또 다른 색을 갖는 상기 채색조성물을 생성한다.

[0018] 또한, 본 발명에 따른 회화의 채화방법에 있어서, 상기 (b) 단계에서, 상기 채색 대상물 상의 소정의 제1 위치에서부터 제2 위치까지 인접 구간별로 서로 다른 상기 채색조성물로 채색할 때에, 상기 아교의 양이 많은 상기 채색조성물부터 채색한다.

[0020] 본 발명의 특징 및 이점들은 첨부도면에 의거한 다음의 상세한 설명으로 더욱 명백해질 것이다.

[0022] 이에 앞서 본 명세서 및 청구범위에 사용된 용어나 단어는 통상적이고 사전적인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되며, 발명자가 그 자신의 발명을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설명하기 위해 용어의 개념을 적절하게 정의할 수 있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에 부합하는 의미와 개념으로 해석되어야만 한다.

발명의 효과

[0024] 본 발명에 따르면, 특유한 색을 지닌 안료, 아교, 및 물 중 적어도 2 개 이상을 혼합하여 생성된 채색조성물로써, 통일적이고 간단하게 종래 회화기법을 구현할 수 있으므로, 회화의 대중화 및 전통회화의 보급화에 기여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 [0026]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회화의 채화방법의 순서도이다.
- 도 2 내지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회화의 채화방법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단면도이다.
- 도 6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회화의 채화방법으로 채색된 이미지이다.
-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회화의 채화방법으로 채색된 회화의 이미지이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 [0027] 본 발명의 목적, 특정한 장점들 및 신규한 특징들은 첨부된 도면들과 연관되어지는 이하의 상세한 설명과 바람직한 실시예들로부터 더욱 명백해질 것이다. 본 명세서에서 각 도면의 구성요소들에 참조번호를 부가함에 있어서, 동일한 구성 요소들에 한해서는 비록 다른 도면상에 표시되더라도 가능한 한 동일한 번호를 가지도록 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제1", "제2" 등의 용어는 하나의 구성요소를 다른 구성요소로부터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구성요소가 상기 용어들에 의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하,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는 관련된 공지 기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 [0029]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형태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 [0031]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회화의 채화방법의 순서도이다.
- [0032]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회화의 채화방법은 (a) 소정의 색을 갖는 안료, 아교, 및 물 중 적어도 2 개 이상을 혼합하여 채색조성물을 생성하는 단계(S100), 및 (b) 채색 대상물에 채색조성물을 도포하여 채색하는 단계(S200)를 포함한다.
- [0034] 본 발명은 회화의 채화방법에 관한 것이다. 회화는 캔버스, 종이 등의 표면에 선과 색을 이용하여 그린 그림인데, 여기에 사용되는 종래의 채색기법은 매우 복잡하고 전문화되어 있으며, 사용자의 능력에 따라 그 표현에 개인차가 존재한다. 이러한 채색기법은 회화의 질을 보장하고 미감을 주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한편으로는 회화의 대중화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이에 종래의 복잡하고 기능적인 채색기법을 대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본 발명에 따른 회화의 채화방법이 안출되었다.
- [0036] 구체적으로, 본 발명에 따른 회화의 채색방법은 채색조성물 생성단계(S100), 및 채색조성물 도포단계(S200)를 포함한다.
- [0037] 채색조성물 생성단계(S100)에서는 안료, 아교, 및 물 중 적어도 2 개 이상을 혼합해서 채색조성물을 제조한다. 이때, 채색조성물에는 공통적으로 아교 및 물이 포함되고, 선택적으로 안료가 혼합된다. 여기서, 안료는 물이나 유기용제에 녹지 않는 미세한 분말상의 착색제이다. 이러한 분말상 안료는 접착제와 섞여서 물감으로 사용되는 데, 이때 접착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교이다. 아교는 특히 동양회화에 주로 사용되는데, 동양회화의 색채가 아름답고 오랜 시간이 흘러도 쉽게 변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아교 때문이다. 즉, 아교는 퇴색과 박락을 방지하고 색채를 선명하게 유지시킨다. 이러한 아교는 동물의 가죽이나 힘줄, 뼈를 끓여서 단백질 성분을 포함하는 용액을 추출한 후, 이를 가수분해하여 제조할 수 있다. 한편, 물은 안료 및/또는 아교와 혼합되어 농도를 조절하고 유동성을 부여한다.
- [0038] 채색조성물 중 안료가 포함된 경우에는, 안료가 종류에 따라 각각 독특한 색을 가지므로, 안료에 의해 소정의 색을 나타낸다.

- [0040] 채색조성물이 생성되면, 채색조성물 도포단계(S200)를 수행한다. 여기서는 채색 대상물에 상기 채색조성물을 도포하여 채색한다. 이때, 채색 대상물은 회화가 그려지는 기재로서, 예를 들어 종이, 캔버스, 나무, 고무, 자개 등일 수 있다. 다만, 채색 대상물이 반드시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채색조성물이 도포될 수 있는 소재이면 어떤 것이든 무방하다.
- [0041] 채색조성물을 도포하는 방법에 따라 무색법, 중첩법, 혼합법, 감교법 등의 채색기법으로 구분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하기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여기서, 채색기법은 각각의 기법을 서로 구분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이름한 것에 불과하고, 이에 의해 권리범위가 한정되지는 않는다.
- [0043] 도 2 내지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회화의 채화방법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단면도이고, 도 6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회화의 채화방법으로 채색된 이미지이다.
- [0044] 도 2에서는, 무색법을 도시하고 있다. 무색법은 안료를 포함하지 않고, 아교와 물을 혼합한 채색조성물(20a)을 도포하는 채색기법이다. 여기서, '무색'은 안료(21)를 사용하지 않는 기법을 표현하기 위해 명명한 것이고, 채색조성물(20a) 자체가 반드시 투명할 필요는 없다.
- [0045] 무색법에 사용되는 채색조성물(20a)은 아교와 물을 1 : 4 ~ 8 의 비율로, 바람직하게는 1 : 6 의 비율로 혼합 생성하고, 이렇게 생성된 채색조성물(20a)을 채색 대상물(10)에 적어도 3 회 이상 도포함으로써 완료된다.
- [0046] 무색법은 채색 대상물(10)의 표면을 처리하는 기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흡수력이 강한 채색 대상물(10)에 대해서는 안료(21)가 제대로 적용되기 어렵기 때문에, 아교와 물이 혼합된 채색조성물(20a)을 이용해서 채색 대상물(10)의 표면에 바탕층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때, 바탕층에 의해 채색 대상물(10)의 흡수력이 저감된다.
- [0047] 이렇게 바탕층이 형성되면, 그 위에 안료(21)를 포함하는 채색조성물(20b)을 도포할 수 있다. 이때, 안료(21)를 포함하는 채색조성물(20b)의 선명도는, 바탕층이 없는 채색 대상물(10)에 도포된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등히 향상된다.
- [0048] 따라서, 무색법은 회화를 위한 바탕을 만드는 기법으로, 회화 전체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법이 될 수 있다.
- [0050] 중첩법은 도 3과 같이, 서로 다른 색을 갖는 다수의 채색조성물(20)을 하나씩 교대로 도포하는 채색기법이다. 구체적으로, 서로 다른 색을 갖는 다수의 안료(21)를 준비하고, 그 각각과 아교와 물을 혼합하여 서로 다른 색을 갖는 다수의 채색조성물(20)을 생성한다. 다음에, 다수의 채색조성물(20)을 하나씩 교대로 도포한다. 여기서, 다수의 채색조성물(20)이 적층되는 구조를 이루는데, 이때의 발색은 그 채색조성물(20)이 갖는 색과 다르게 유도된다. 예를 들어, 적색의 채색조성물(20a)과 황색의 채색조성물(20b)을 번갈아 도포함으로써 주황색을 표현할 수 있다. 이는 채색조성물(20a, 20b)에서 빛(화살표)이 진행하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굴절률이 변하기 때문이다.
- [0051] 따라서, 중첩법은 일반 회화의 채색기법으로는 발현될 수 없는 색감을 표현하여 회화의 미적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 [0052] 한편, 중첩법에서 혼합되는 아교와 물은 1 : 4 ~ 8 의 비율로, 바람직하게는 1 : 6 의 비율로 사용될 수 있다. 다만, 그 비율이 반드시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 [0054] 또한,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중첩법의 경우에 어느 하나의 채색조성물(20)을 도포한 후, 그 위에 백반수(30)를 도포하고, 도포된 백반수(30) 위에 다른 하나의 채색조성물(20)을 도포한다. 여기서, 백반수(30)는 백반과 물을 혼합한 것으로, 백반과 물을 1 : 90 ~ 110 비율로, 바람직하게는 1 : 100 의 비율로 혼합한다. 다만, 그 혼합비율이 반드시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 [0055] 백반은 아교의 콜라겐을 수축시킨다. 따라서, 상층에 소정의 안료(21b)를 함유하는 어느 하나의 채색조성물(20b)을 도포할 때에, 하층에 도포된 다른 채색조성물(20a)의 안료(21a)가 닳아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백반수(30)를 그 사이에 도포함으로써, 색채가 번지거나 얼룩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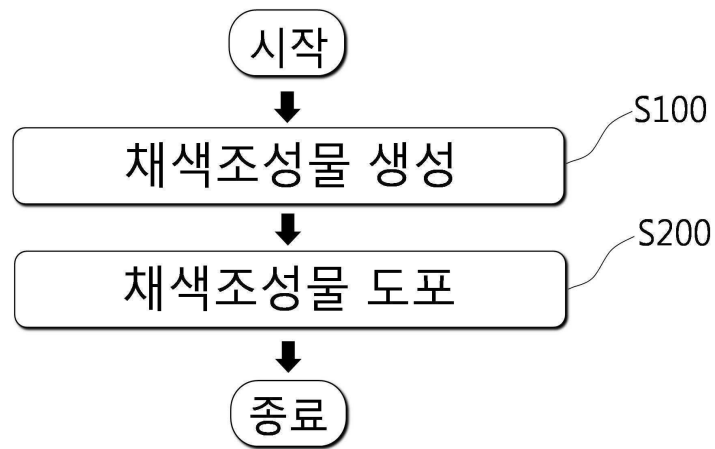
- [0057] 도 5에서는, 혼합법을 도시하고 있다. 혼합법은 다수의 안료(21)를 한꺼번에 혼합하여 사용하는 기법이다. 구체적으로, 서로 다른 색을 갖는 다수의 안료(21a, 21b)와, 아교 및 물을 서로 혼합하여 채색조성물(20)을 생성한다. 이때, 생성된 채색조성물(20)의 색은 다수의 안료(21a, 21b)가 각각 가지는 색과는 다른 색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황색 안료(21a)와 적색 안료(21b)를 미리 섞어서 주황의 채색조성물(20)을 제조할 수 있다. 이러한 기법은 화면의 공간감과 불투명성 등을 형성하는데 사용 가능하다.
- [0059] 감교법은 채색 진행시에 점점 아교의 양을 줄이면서 채색하는 기법이다. 도 6과 같이, 채색 대상물(10, 도 2 내지 도 5 참조) 상의 소정의 제1 위치(P1)에서부터 제2 위치(P2)까지 인접 구간별로 채색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이다. 여기서, 인접 구간별로 서로 다른 채색조성물(20)이 사용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채색조성물(20) 내의 아교의 양은 서로 다르다. 이에 채색 순서도 아교의 양에 따라 정해지는데, 연속적으로 채색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아교의 양이 많은 채색조성물(20)부터 차례로 사용한다. 따라서, 제1 위치(P1)에 가장 가까운 제1 채색조성물(20a)과 두번째로 가까운 제2 채색조성물(20b)을 비교할 때에, 제1 채색조성물(20a)의 아교의 양이 더 많다. 이러한 방식으로 아교의 양이 많은 순서대로 먼저 채색하고 나면, 마지막에는 아교 없이 안료와 물의 혼합물로만 채색할 수 있다.
- [0061] 종합적으로, 본 발명에 따르면, 특유한 색을 지닌 안료(21), 아교, 및 물 중 적어도 2 개 이상을 혼합하여 생성된 채색조성물(20)로써, 통일적이고 간단하게 종래 회화기법을 구현하고, 나아가 새로운 미감을 구현할 수 있으므로, 회화의 대중화 및 전통회화의 보급화에 기여할 수 있다.
- [0063]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회화의 채화방법으로 채색된 회화의 이미지이다.
- [0064] 도 7의 (A)에서는, 본 발명에 따른 회화의 채화방법을 사용하여, 정정해 작가의 책가도를 모사하여 완성한 작품이다. 기존의 원본과 비교할 때에, 거의 유사한 발색 효과를 드러내고 있다.
- [0066] 도 7의 (B)는 본 발명에 따른 회화의 채화방법을 통해 천경자 작가의 팬시라는 작품을 모사한 것이다. 여기서도 원화와 거의 유사한 발색이 구현되었다.
- [0068] 이상 본 발명을 구체적인 실시예를 통하여 상세히 설명하였으나, 이는 본 발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 내에서 당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그 변형이나 개량이 가능함이 명백하다.
- [0070] 본 발명의 단순한 변형 내지 변경은 모두 본 발명의 영역에 속한 것으로 본 발명의 구체적인 보호 범위는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에 의하여 명확해질 것이다.

부호의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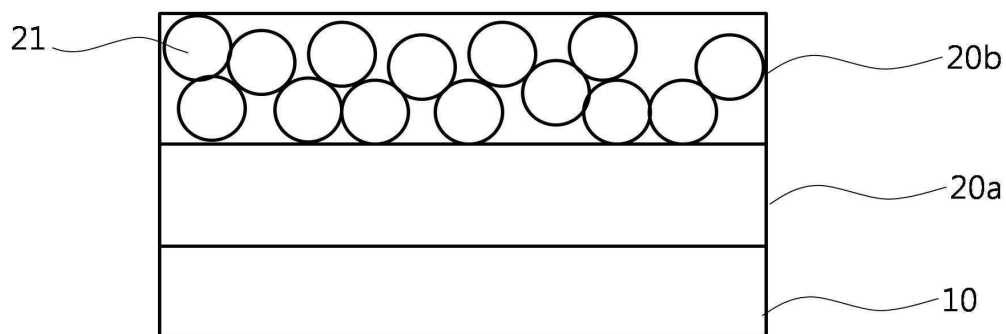
- [0072] 10: 채색 대상물 20: 채색조성물
21: 안료 30: 반수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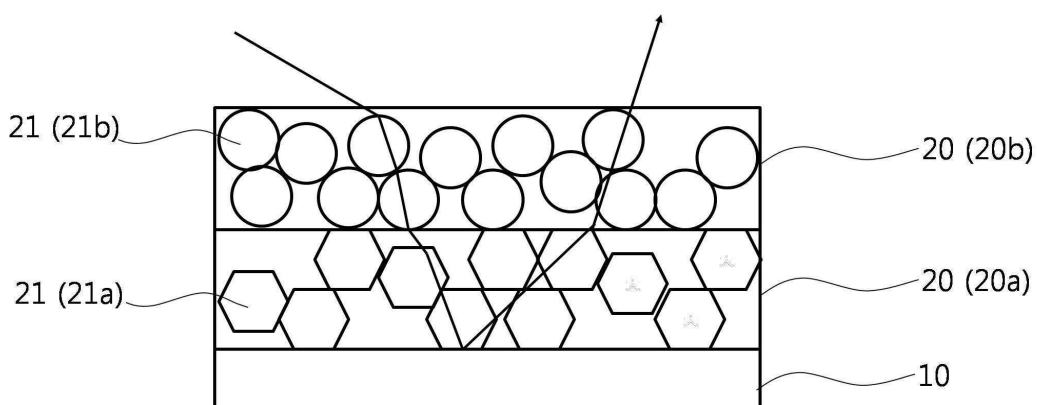
도면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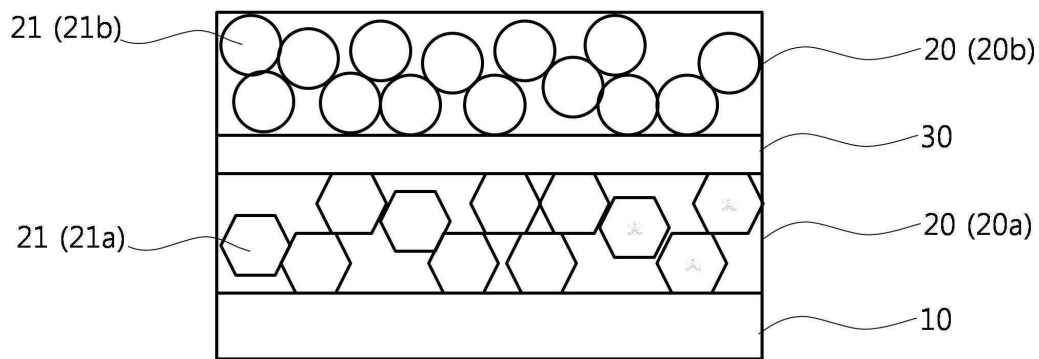
도면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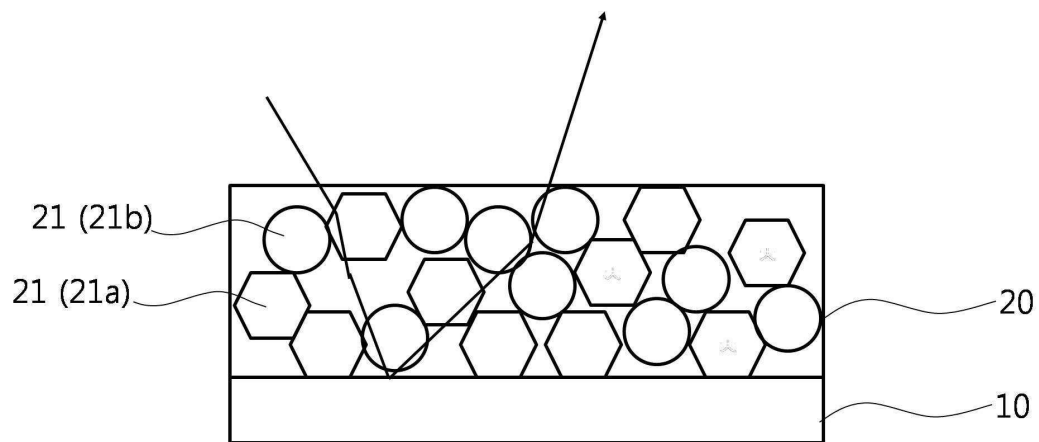
도면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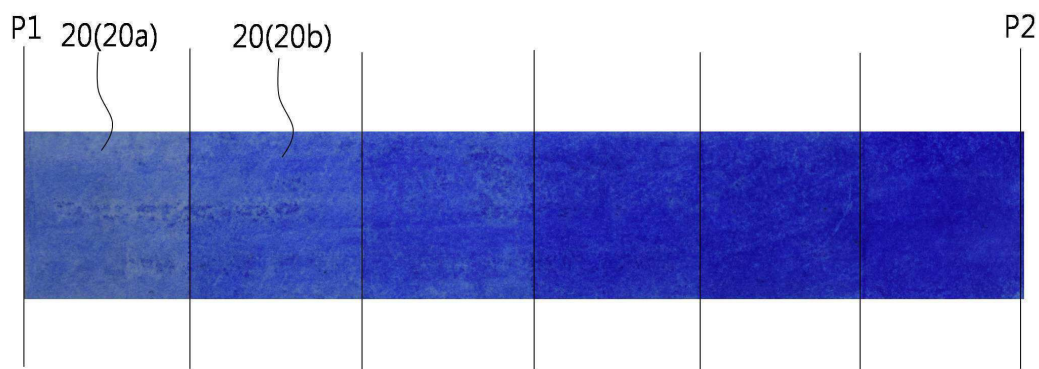
도면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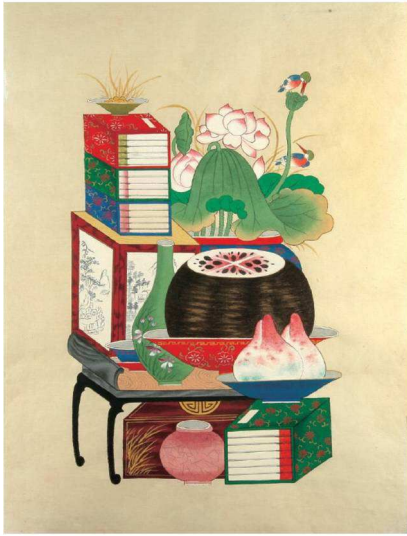
도면5



도면6



도면7



(A)



(B)